

全相運, 「韓國科學技術史」 30주년 심포지엄

1996. 6.1.

1996년은 全相運 교수의 「韓國科學技術史」 출간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과학사학회는 이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39회 역사학대회 과학사부 발표회의 일부로 열린 “全相運, 「韓國科學技術史」 30주년 심포지엄”에는 전상운 교수 자신의 발표도 있었으나 구두로만 발표되었을 뿐 원고가 준비되지 않아 여기 신지 못한다. 그러나 전교수의 이날 발표와 관련된 내용이 “나의 책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韓國史 市民講座」 제12집 (일조각, 1993년 2월)에 실려 있음을 알린다. 편집인.

영문판 Jeon's Science & Technology in Korea의 明暗

朴星來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내가 전상운 교수의 영문판 「한국과학기술사」를 읽은 것은 21년 전의 일이다. 이 책의 본문 마지막 장에는 지금도 선명하게 “1975年 1月 27日, Palolo 구석에서”라고 써 놓았던 내 연필 글씨가 남아 있음을 보아 알 수가 있다. 나는 책을 다 읽었을 경우 끝에 그 날짜를 적고, 감상을 한 두줄 정도 기록해 두는 수가 많은데 이 책에는 내 감상문으로 이런 말이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museum catalogue+annotated bibliography”

당시 내가 이 책을 읽고 정확히 어떤 느낌을 가졌던지는 지금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책을 ‘박물관 안내서에다가, 참고 서적에 대한 주석’ 정도라고 영어로 논평했던 당시 기록을 보면, 그때 나의 감상은 그리 감동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그랬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나는 이 책의 앞 부분의 22(xxii)쪽과 본문 315페이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357페이지까지의 참고문헌

(Bibliography)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철저하게 읽고 여러 곳에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고, 느낌도 표시하거나 밑줄을 쳐 놓았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숫자는 상당히 많다. 게다가 당시 한참 공부하고 있던 나로서는 아주 야심에 차서 “하늘이 돈짝 만하게 보이던” 시절이었을 터이니, 이 책이 그리 감동적이었을 까닭이 없었을 법도 하다. 여하튼 당시로서는 꽤 철저하게 이 책을 읽었고, 그렇게 공들여 한 권의 책을 읽은 일도 별로 많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지금 나는 이 책을 언제 주문해서 읽기 시작했던지 기억할 수가 없다. 기록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기억에 나는 이 책을 발행된 그해 즉 1974년 언제인가 주문하여, 배달받아 바로 읽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아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독파했던 것으로 보인다. 책값은 \$17.50이라 써 있어서 당시 상당히 가난하게 유학 생활을 하던 나로서는 제법 용기를 내서 이 책을 주문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된다. 그만큼 당시 나로서는 내 장래가 한국과학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책 광고를 보자 바로 주문해 읽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당시 이 책이 내게 준 인상은 어느 정도는 그 서문(Foreword)을 쓴 시빈(Nathan Sivin)의 논평에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나는 처음 이 책을 읽으며 시빈의 서문 가운데 다 음과 같은 부분에 빨강색 밑줄을 쳐 놓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의 과학기술사가 아니다”(This book is not a history of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if. . .)라는 강한 표현이 그것이다. 물론 이 문장 다음에는 “만일. . .” 하는 조건문이 따르기는 하지만, 당시의 나에게는 바로 시빈의 이와 같은 표현이 강하게 와 닿았으리라고 생각된다. 당시 이 책의 원본인 전교수의 1966년판 「한국과학기술사」를 갖고 있던 나에게는 시빈의 이런 논평이 특별히 강한 인상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그는 이 책의 한국 제목을 아예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나는 알아 차렸기 때문일 것이다.

시빈은 여기서 “한국과학기술사”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한국 역사에서의 여러 가지 역동적 관계-- 즉 사회 환경의 변화와 사상과 기술의 전개 등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전개되는 가--를 밝히는 작업이 보여야 할 것이지만, 아직 전상운교수의 이 책은 그런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런 노력은 아직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런 열매를 맛 볼 수 있게 된다면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 「한국에서의 과학과 기술」(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이 목표로 하는 것은 그런 작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그런 작업을 하루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준비 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이 시도하는 바는 한국 문명이 낳은 기술상의 업적 들을 오늘의 잣대로 재어 보려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내가 당시 빨간 줄로 주목해 놓은 부분은 대강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빈의 서문(Foreword)에 이어서는 또 하나의 짧은 서문(Preface)이 있다. 지은이가 쓴 이 서문 첫머리에서 전교수는 역시 “지금으로서는 포괄적인 역사적 접근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전교수는 이 책이 1966년의 한국어판 「한국과학기술사」에서 유래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어판에 ‘역사’라 했던 부분을 영문판에서는 빼어아 했던 사정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 21년 전의 나는 바로 이런 부분이 혼돈스러웠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빨강 연필 자국을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실이지만, 당시 시빈은 니덤의 중국 과학사 연구에 크게 고무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 때까지 서양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주인공이라 여겼던 역사관이 니덤의 중국 과학기술 문명 발굴로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그는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런 경향은 중국의 주변 문명의 과학기술적 성과를 연구하면 더욱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에 붙인 시빈의 서문에 이미 그런 표현이 들어 있음을 이번에는 발견하게 되었다. 시빈은 전교수의 「한국과학기술사」 영어판을 내면서 그런 희망을 거기 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이런 당시의 인상을 배경으로 하고, 당시 내가 발견하여 표시해 두었던 이 책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두려 한다.

(1) 우선 번역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있다. 당시 이 책은 영어 번역에 여러 사람이 동원된 것으로 서문에 밝혀져 있는데, 이들이 지은이의 원래 뜻을 잘못 이해하여 저지른 잘못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간혹 원저에 잘못된 부분도 있고, 더 많은 경우는 번역을 간소하게 하려다가 그만 실수한 것같은 부분도 있다.(숫자는 쪽수임)

93.....일식 월식 예보 실수로 직위를 잃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 원문 94(66) 113(75) “처벌 된”

95.....<교식추보법> 과거(civil service exam) 교재라고 -- 원문 “음양과 초시의 시험교재”

- 96.....셋째 단락 마지막 두 줄 In all the hundreds of records of these phenomena, Venus was involved 이것은 “. . .넷째가 오위엄범, . . .다섯째는 星晝見인데 그것은 모두 太白, 즉 금성이 낮에 보인 것으로 수백회에 달하는 기록이 나타나 있다.” (76년판 116쪽)
- 105-106.....관상감의 직제 가운데 geography는 geomancy가 더 적당함
- 109.....측우기 발명에 대해 “the accumulated records of quantitative measurements of rainfall” 이란 원문 “강우량의 수량적 측정이라는 累積의 전통” (76년판 128)을 잘못 번역한 것
- 124.....전라 양강도--전라도, 양강도
- 127.....번개 같기도 했는데 불은 일어나지 않았다.(76년판 146)-- It looked like lightning, but it gave off no heat.라 잘못 옮김
- 128.....서리와 눈은 그것이 내린 시기가 기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小雪前 立夏後인가에 주의 하였다.(76년판 147)--. . .particular care . . . whether they occurred before frost and snow or after.(128)
- 149.....제목에 Moving Machines는 원제목 ‘동력기계’ (76년판 166)의 잘못
- 156.....朴瑞生이 일본에서 보고 온 수차에 대한 설명은 완전히 잘못 번역되어 있다. “전통적 수차는 급류에 가설하면 너무 빠르게 돌고, 물살이 너무 느릴 때는 발로 힘을 가해 주어야 했다” 고 영어판에 써 있는데, 이 부분은 1976년 한국어판에는 “그가 일본에서 보고 온 수차는 水勢를 이용하여 自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급류에 가설하면 自轉하지만, 漫水에 가설하면 自轉하지 않아서 발로 밟아야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했다.” (176) 고 되어 있어 전혀 틀림을 알 수 있다.
- 186.....최무선의 화약 발명 설명 가운데 중국 황제가 비밀 지령하여 고려에 염초 50근 (약 30kg) 과 황 10만근을 보냈다고 쓰고, 염초 50근이란 거의 무시해도 좋을 분량일 뿐이라고. . . 하며 이부분을 許善道 논문 “여말 선초 화기의 전래와 발달” 에서 옮긴 것으로 써 놓음 --1975년판에도 똑같은데 이 부분에 이어 전교수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사실은 사실상 흑색 화약의 원료의 하나였던 유황을 받았다는 말 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焰硝 50근이란 있으나마나한 양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06) 그런데 허선도교수의 원래 논문에는 이것이 <50만근>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교수가 이를 ‘만’ 을 잘못 해 빼고 <50근>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실수는 이미 1966년판 (174쪽)에도 그대로 보인다.
- 229.....청운교--Dark Cloud Bridge

(2) 각주 잘못(쪽수가 표시 안 된 경우가 제법 있음)

- 94.....고려 때 일 월식 예보 실수로 처벌된 경우 --6회라고 하고, 각주는 문헌비고 4:1b-10a 로 했는데, 원문(75년판 114)에는 “「고려사」에는 일월식의 추산을 잘못해서 처벌되었거나 혼란을 일으킨 사실이 6회. . . “ 이에 대한 각주는 같은 문헌비고 같은 곳을 달음-- 그러나 문헌비고 거기에는 처벌등의 기록은 없음
- 94.....각주 199 잘못됨
- 97.....각주 208 ibid.는 앞과 같은 책이 아니라 「문헌비고」임
- 145.....지남침의 편각에 대해 각주 34에는 「동의보감」 9장, tr. in Needham, SCC, vol. 4, p. 251, 이라 되어 있으나, Needham의 이 부분에는 「동의보감」이 인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문헌 「本草衍義」가 인용된 것임. 이 부분은 75년판 161쪽에도 똑같이 잘못되어 있음
- 157.....각주 53에는 전교수의 1966년판 152쪽을 인용해 놓았으나, 그 곳에는 아무런 원전 소개 없이 조선 시대의 수차 발달 과정이 나열되고 있음
- 163.....각주 62, 63에 모두 홍이섭 「조선과학사」 260-261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는 1976년판에도 똑같은 잘못이 있어 그대로 번역된 듯하다. 각주 62번은 이능화의 책으로 그대로 두고, 각주 63에만 홍이섭을 인용해야 옳다.

241.....董越의 「朝鮮賦」가 본문에 인용되어 있는데, 그 아래 각주에도 인용되고 있지 않고, Biblio-graphy(316)에도 빠져 있음

(3) 한자 잘못:

150.....<辨韓傳>-- 弁

157.....全益慶-- 金益廉-- 이는 1976년판 (178), 1966년판 (152)에도 원래 틀려 있음

281.....각주 25에 나오는 '山川神補都監' 은 '山川裨補都監' 이 옳음

(4) 한자 발음 잘못:

누주통의.....누수로 잘못 표기 88, 89

인쇄.....인쇠(insoe) 168, 169, 182, 248

152.....섭扇(접는 부채)-- '접선' 이라 발음 표기

182.....戊申字 -- '술신' (Sulsin)으로

이런 적지 않은 잘못들이 눈에 띈다. 그 밖에도 인쇄상의 잘못도 좀 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생략했다. 이런 적지 않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생각해 보건대 전상운교수의 영문판 「한국과학기술사」는 역시 중대한 업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원전인 1966년의 「한국과학기술사」에서 비롯함은 물론이다. 지난 30년 동안 전교수의 「한국과학기술사」는 누가 뭐라해도 한국의 과학기술사를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책이 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홍이섭의 「조선과학사」가 나름대로의 중요한 또 한 몫을 했고, 어느 의미에서는 그 밖의 다른 과학기술사 책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한국의 과학기술사에 대한 한 권만의 책을 찾아 보려 했을 경우는 당연히 전상운 교수의 이 책을 구해 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평가는 지금 우리가 30년을 기념하고 있는 그의 「한국과학기술사」 한국어판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저본으로하여 발행된 영어판(1974), 한국어판(1975), 일어판(1976?)을 통해 지난

30년 그야말로 한국과학사의 세계화에 대표적 저서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전교수와 시민이 함께 말하고 있던 그런 한국 과학사에 관한 저서는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저서란 말처럼 그리 쉽고 간단히 나올 수가 없을 것이란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 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이 일부는 내게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도 된다.

전상운 교수의 「韓國科學技術史」 30년을 되새기면서 나로서는 먼저 내 개인적인 회상이 없을 수 없다. 이 책은 30년 전 내가 자주 드나들던 科學世界社에서 발행되었다. 당시 연희대 물리학과 4학년이던가 하는 南宮浩사장이 시작한 과학 월간잡지 「과학세기」를 출판하던 회사였는데, 그 위치는 지금의 한국일보 옆 골목에 있었고, 지금 기억으로 그 자리는 바로 남궁호 사장의 집 한 쪽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사장과는 별로 사귄 일이 적었다고 기억되지만, 기자로 일하던 이병훈, 지기운, 박명기 세 사람은 꽤 자주 만나고 있었다고 기억한다. 당시 조선일보 과학 담당 기자였던 나는 아마 이 책의 편집 과정 중에 줄곧 이들 기자들과 만나고 있었고, 필경 거기서 처음 전교수를 만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병훈기자는 전북대 교수로 활약하고 있는 분이어서 지금도 가끔 만날 기회도 있지만, 지기운씨와 박명기씨는 거의 만나지도 못하며 지내고 있다는 아쉬움 같은 것을 느끼며, 30년전의 한국어판을 꺼내 보았다. 그 책에는 저자의 後記가 있는데, 그 마지막 대목에 “편집과 교정을 맡아주신 박명기씨, 이병훈씨, 지기운씨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를 드린다.”란 말이 적혀 있음을 발견했다. 아마 전교수는 나이 순서대로 이들 이름을 써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지기운씨가 지기운씨로 다른 것이 눈에 띄는데 원래 그분의 이름이 그랬다고 새삼 기억이 떠오른다. 하나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호였던 것 같다.

아마 이런 연고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30년전 이 책이 발행되자 바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가하는 기회를 얻었고, 그 장소는 광고 근처에 있던 ‘호수 그릴’ 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책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책은 1966년 3월 30일 700부 한정판으로 찍어낸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4월 중에 열린 출판 기념회였을 것 같다. 그 장소에서 나는 인사말을 한 홍이섭교수를 처음이며 마지막으로 만났던 것을 기억하지만, 그 밖에는 거의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과학사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이미 하고 있을 때였건만 한국과학사를 공부할 생각은 꿈에도 없던 시절이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책에는 앞 표지 안장에 “朴星來學兄께 著者드림”이란 정성들인 글씨가 쓰여져 있다.

생각해 보아도 언제 이 책을 저자 사인을 받아 얻게된 것인지 도무지 기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저자 사인만 있을 뿐 날자는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나는 이 책을 3권 가지고 미국에 갔던 것 같다.

한권은 바로 내 이름이 적힌 것, 다른 한 권은 함께 중앙일보 과학부 차장으로 일하던 이종수씨가 자기는 필요 없을 터이니 가져가라고 주어서 가져 간 것, 그리고 또 한 권이었다. 그 가운데 아무 사인도 없는 것은 나의 지도교수였던 캔사스대학 사학과와 다우브(Edward Daub) 교수에게 주었고, 나머지 두 권은 그대로 미국 생활에 끌고 다니다가 지금도 가지고 있다. 이종수씨가 준 사인이 들어 있는 책은 어디 숨었는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 . .

전교수의 영문판 『한국과학기술사』는 거의 새까맣게 보이는 표지 장정으로 출판되었다. 새까만 배경에 거북선 그림을 노랑으로 깔고 흰 글자 제목에 노랑 글씨의 저자 이름이 들어 있어 전반적으로 캄캄한 배경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나의 인상도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었다. 그런 어둠(暗)의 기억은 돌이켜 보면 사소한 것이었다고 느끼게 된다. 그런 어두운 구석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30년 동안 한국의 표준적 과학사 책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그런 자리를 지켜 갈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 책은 책으로써 대단히 성공적인 책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교수 책 30년의 가장 밝은(明)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